

<ALL-LIFE 목장 소그룹 나눔교재>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갈라디아서 2:11~21) (10 월 넷째주)

1. 찬송가: 찬 288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 기도: 목자 혹은 목원 중에 한명이 기도합니다
3. 성경본문: 갈라디아서 2:11~21 (10 월 21 일 본문)
4. Focus – 성도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5. 마음열기 – 요즘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6. <말씀 배경 이해하기> 소아시아 중북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척결하고 ‘바른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은 할례를 받거나 음식법 등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16 절).
7. 말씀 나누기
  - 1) (관찰과 묵상)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게바)와 바나바 등은 어떻게 했나요? (11~13 절)
  - 2) (적용과 나눔) 내게 두려움을 주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 3) (관찰과 묵상)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 조건으로 내세운 이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16 절)
  - 4) (적용과 나눔) 나는 언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나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의 변화나 성숙을 경험한 일을 나누어 보세요.
8. <말씀 다지기>: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행 15 장)에서 결정했듯이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행위로 구원의 확신과 심적 평안을 얻으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내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9.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 “현혹하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를 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10. 마음에 새기기 – (갈 2:20)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1. 기도제목 나누기 (목원들의 기도제목) – 목자는 꼭 기록하고, 기도 전에 다시 제목을 나눕니다.